

1 개요

행원남당본풀이는 구좌읍 행원리 남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중이대사는 강원도에서 제주로 들어와 행원리에 이르러 흉년들게 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린 뒤에 남당으로 가서 남당한집과 함께 좌정하여 바다 생업을 돌보는 신이 되었다.

2 내용

중이대사는 강원도 철산에 있는 절의 중이었다. 절이 없어지자 한라산을 구경하려고 제주도로 들어왔다. 북촌에 이르렀더니 환갑잔치 하는 집이 있어 갔더니 돼지고기 삶은 물에 소면을 말아주는 것을 보고 있을 곳이 못된다고 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행원리에 이르러 보름을 기다려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분작할망을 만나 인사를 드리니 신영모루 문씨고냥할망에게 인도하기에 그곳으로 가서 함께 좌정하였다. 칠팔월이 되어 산중 구경을 나섰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그리하여 마을 농작물이 흉년들게 해 버렸다.

유지들이 의논한 결과 난데없는 대사가 나타난 사실을 알고 대사를 청하여 물어보기로 하였다. 중이대사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흉년들게 하였다고 하니, 유지들이 중이대사로 하여금 좌정하기를 권하였다. 중이대사가 남당으로 가니, 남당한집은 중이대사가 돼지고기 국물에 만 소면을 먹은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좌정하기를 허락하고, 배와 잠수와 어장을 함께 돌보기로 하였다.

3 특징

이 본풀이는 전체적인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다. 중이대사는 중이므로, 애초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다. 그래서 북촌리 환갑잔치에 가셔도 돼지고기 삶은 물에 만 소면을 대접 받고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런데 남당한집은 돼지고기를 먹었지만 용납한다고 하였다. 앞서 돼지고기를 먹은 것으로 처리하고, 남당으로 들어설 때는 돼지고기 먹은 탓에 남당한

집보다 낮은 서열의 신으로 좌정한다고 해야 적절하다.

대개 남당은 돼지고기를 제물로 받는 당이다. 그러므로 종이대사가 본래의 속성을 버리고 돼지고기를 받는 신이 되는 것이 옳고, 남당한집도 돼지고기를 받는 신이니 둘이 함께 좌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4 핵심어

종이대사, 강원도, 철산, 북촌, 돼지고기, 소면, 남당한집, 오분작할망, 신영모루, 문씨고
냥할망, 유지, 흥년, 배, 잠수, 어장, 행원리

5 원전 서지사항

행원남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